

# 그때그시절

第 26 回

## 韓國(朝鮮)齒科界 變遷物産

大澤義誠

- ◇……本文은 大韓齒科醫師研究會誌 第1卷(1960年度)에 掲載된 바 있는……◇
- ◇……內容을 轉載하는 것입니다. 大澤義誠氏(日人, 1914年 龍山 鐵道病院……◇
- ◇……勤務, 聯合齒科醫師會 會長 歷任, 終戰前後死亡)가 寄稿한 本文은……◇
- ◇……많은 參考가 될것으로 믿는다. ……………(編輯者 註)……◇

- ◇…… 朝鮮 齒科界도 最近 눈부실 만큼 意外의 進展相을 보이게 되었는데 今日의……◇
- ◇……隆盛을 이루기까지 어떤 經過를 取해 왔는가 함을 檢討해 보는 일도 虛事는……◇
- ◇……아니라 여기며 惡筆임에도 不拘하고 本誌(譯者 註=朝鮮之齒界)가 創刊되는……◇
- ◇……機會에 썩 보기로 했다. ……………◇
- ◇…… 먼저 밝혀 둘 點은 筆者는 大正三年에 朝鮮에 가서 그 以前의 일에 對해……◇
- ◇……서 알고저 材料 수집에 힘 썼으나 容易하게 되질 않았기에 할수 없이 概要……◇
- ◇……만을 摘記하기로 하며 後日 機會를 봐서 補遺코자 한다. 다음에는 于先 京……◇
- ◇……城을 中心으로 해서 記述하고 漸次 地方에까지 言及코자 한다. ……………◇

### 4. 日路戰役에 特志從軍

氏가 漢城의 日本人村의 中樞에 移轉 開業하고 부터 數年間은 日本에서 渡韓하여 開業한 齒科醫者가 二, 三人 있었으나 모두 居住하기 數個月로써 떠나가고야 말았다. 이것은 當時 一般의 口腔衛生觀念이 極히 幼稚하고 受療者가 적었던 탓이다. 그런데 野田氏는 잘 隱自重하여 大衆에 向하여 機會있을 때마다 齒科衛生思想의 普及에 努力하고 專心 齒科醫療에 盡力한 까닭에 逐年 患者의 數도 늘고 따라서 院務의 隆盛을 보았다.

그리하여 氏의 不斷의 努力은 점차로 나타나서 좋은 時代가 다가왔던 것이다. 그것은 氏가 開業後 七, 八年을 지났을 때 마침 日露의 風雲이 危急해짐에 그때의 帝政 露西亞의 極東侵略政策과 日本帝國의

東洋平和 確保의 政策은 서로 相容될 수도 없게 됨에 結局 明治三十七年二月九日 仁川港 海戰을 始初로 해서 宣戰의 大詔가 渙發되고 日本陸軍은 仁川에서 上陸, 繼續 入城한 時代이었다. 當時 이들 多數의 日本 出征 將士 中에는 齒疾을 가진者가 적지 아니하여 이를 目睹한 氏는 惻隱의 情을 禁할 수 없이 無料施術을 하고 많은 將卒을 病苦에서 救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當時 愛國의 至情에 불타는 青年齒科醫인 氏는 이를 가치고 滿足치 않고 篤志를 갖고 出征軍에 從軍해서 無料로 診療에 從事할 것을 陸軍當局에 志願했다. 그當時에 野田齒科醫院은 開業의 基礎도 되고 唯一의 齒科醫로서 內外人의 患者로부터 信賴를 받고 있었다. 當時 米價는 一升에 金七錢의 時代이었는데

네 月收 六, 七百圓이나 되는 때도 있어 氏의 生活은 그 社會的 地位와 함께 向上을 이루게 된 때라서 이것이 凡人이었다면 安逸한 生活에 甘受되어 있었을 것을 氏는 決然 從軍 治療를 申請한 것으로 當局도 氏의 뜻을 壯히 여기고서 다음과 같은 許可가 나왔다.

### 韓國駐劑軍司令部

齒科醫 野田應治

右滿洲軍 總司令部에 特히 從軍하도록 하라.

明治三十七年五月十五日

陸軍大臣 寺內正毅

이렇게 許可 받아서 從軍하게 됨에 그때 日本出征軍 京城兵站司令官 立永勝三郎氏로부터 다음과 같은 紹介文을 얻었다: 이것으로 미

루어 보라 當時의 野田氏의 精神이 奈邊에 있었는가를 熟知할 수 있겠 다. 卽

### 韓國 京城 南大門通

#### 四拾四番地 居留

##### 齒科醫 野田應治

右者는 從來 當京城에 있어서 齒科醫를 營爲코 醫院을 有하는 者인데 前番의 第十二師團 入城에 있어서부터 特志로써 軍人 軍屬의 齒科患者에 對해 無料施術을 하고 現在까지 實行하고 있음은 現在 承認하는 바로서 이제 다시금 多數患者所在地에 가서 恤兵의 意志를 貫徹키 위해 貴地 各面에 가서 自費施行을 企望코져 兵站線의 通行을 申請하였기에 許可하였음. 各地 各部에 있어서 相應될 便宜를 봐주시고 先分히 本人의 意志를 達成케 해주면 軍隊도 또한 同時에 利便點 적지 않으리라 믿으니 事情을 參酌해서 되도록 便宜를 보아 주시겨 바라며 이번엔 證明과 함께 紹介하나이다.

各地兵站及碇泊所司令部

各團隊及病院患者療養所長 御中

同時에 從軍許可證도 下附되었다 이렇게 해서 野田氏는 自己 天職으로써 盡忠報國의 素志를 이룰수 있는 機會가 到來하였음을 기뻐하고 이 紹介狀을 얻어 從軍하게 되었다. 그리고 戰局의 發展에 따라 漸次 北進하여 日夜勉勵拮据 齒疾로 苦生하는 將士를 施療하고 크게 日本軍의 感謝를 받게 되었다. 더욱 나아가선 安東眞까지 가게 됨에 醫藥品의 品切로 할수 없이 京城에 돌아왔는데 이동안 實로 數個月의 長時日를 要한 것이다.

京城에 氏가 歸來한 것을 傳해 들은 患者의 多數는 氏의 醫院으로 밀려 들었는데 軍團을 爲해 일하고자 하는 氏의 情熱은 기어히 또 다시 旅裝을 갖추고 滿州의 野原으로

가게끔 했다. 同年五月 海路 仁川에서 大連에 上陸했다. 그리고 滿洲軍司令部에서 다음과 같은 辭令을 받았다.

##### 齒科醫 野田應治

右者 特志 治療를 爲해 遼東兵站管區關東洲民政署管區 及 旅順要塞地域에 旅行을 許可함. 浴道鐵道の 便乘 及 必要時에 있어서 車馬의 供給을 받을수 있음을 許可함.

明治 三十七年 八月 五日

滿洲軍總司令部 印

이래서 氏는 大連에서 奉天方面에 가서 無料診療에 從事하고 數萬同胞의 疾苦를 고치고 다시 南下해서 遼陽, 大石橋에서 營口旅順等各地 戰場 間을 轉轉하며 各所에서 絶大한 感謝와 信賴를 받고 別故없이 初志를 貫徹했던 것이다. 戰爭과 同時에 從事하고서부터 前後一 個年有餘 이 期間에 施療한 사람은 實로 五千有餘名에 達했다. 그래서 그間 各司令官, 病院長, 各團隊長 등으로 부터 感謝狀을 受領한 것은 數十通에 達했다고 한다.

이렇게 多大한 勞苦와 費用을 써서 獻身의으로 힘쓴 것은 참으로 奇特이라할 바로서 當時의 滿州日報及 同氏의 出身地인 大分縣의 中津新聞에도 野田氏의 行動을 從軍美談으로 巨細하게 報道한 程度이었다.

從軍中 同氏의 困苦와 努力은 大端한 것이 있었는때 이 犧牲의 美舉가 아직 社會에 認定받을 수 적었던 我齒醫術의 聲價를 發揚하는데 多大한 効劵가 있었음은 想像에 어렵지 않은 바이다.

明治三十八年秋 平和克復되자 同氏에 對해서 從軍中の 功勞가 認定되어 勲六等, 瑞寶章을 받았다. 이것은 日本에 있어서 齒科醫로서 軍國에 盡力했기에 叙勲된 것은 野田氏가 最初인 것이다.

### 從軍中 얻은 感謝狀

(譯者註=本記事 序頭에 野田氏의 사진이 있음. 日本服 上半身) =感謝狀의 內容은 省略)

### 學校齒科衛生에 貢獻한 事蹟

近來의 學校衛生 特히 中初等學校의 生徒 兒童에 對한 口腔衛生施設의 緊要함이 高唱되게 되었다. 特히 日本에서는 過半數의 府縣에서 各其 府縣令으로써 「學校齒科醫에 關한 規定」을 내게 되었다. 이 趨勢를 보아 文部省에서는 이들 學校醫에 關한 職務를 統코져 함과 同時에 學校齒科衛生의 發達助長을 促進하려고 곧 學校齒科醫에 關한 勅令의 發布를 보게끔 되었음은 慶賀할 바인데 朝鮮에 있어서는 아직 그 程度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 京城齒科醫師會에서는 京城府當局과 協力해서 大正十二年부터 各會員이 奉仕의으로 府內 各小學校 兒童의 齒牙診査를 行하고 그와 同時에 所屬會員이 兒童에 交付한 診査票에 依해서 最低料金으로 治療를 하고 있다. 이것이 逐年 良好한 成績을 올리고는 있으나 아직 隔靴搔癢의 感이 없다고 할수 없다. 이와 같이 朝鮮에 있어서는 아직 發達過程에 있는 形便이나 野田氏는 일찍기 口腔衛生을 年少時代부터 勵行할 必要가 있음을 着眼하고 日本에 있어서까지 施行하는 者가 적었던 明治四十二, 三年頃부터 그 在住地의 小學校 齒科衛生을 爲해 努力한 것이었다. 이 學校齒科衛生에 對해서 野田氏와 協力하고 同業者 一同이 當時부터 盡力했다 라면 朝鮮 아니 적어도 京城에 있어서의 學校衛生은 좀 더 發達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 野田氏가 京城民團에서 行한 方法

一. 一定한 時期에 있어서 兒童

의 口腔檢査를 하고 別紙와 같은 檢査表를 作成코 (譯者註=本文에 檢査表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圖示하고 있지 않음) 各家庭에 送達하고 保護者에게 注意를 줄것.

二. 每年 一回以上 保護者及 學校職員 諸氏에 口腔衛生 講話를 할 것.

三. 學校의 形便 좋은 時期에 兒童에게 齒牙에 關한 講話를 할 것.

四. 口腔診査後는 되도록 學校와 家庭과 協力해서 患齒를 갖춘 兒童은 治療를 받도록 할 것.

但 治療를 받는 醫院은 指定하지 않을 것. 要는 治療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 醫療는 兒童과 父兄의 任意로 한다.

다음에 最初로 野田氏가 無料로 自己가 交付한 診本票로서 兒童의 齒科治療를 行하였으나 無料治療는 下己의 弊害가 있음을 알고서 治療票에 記入된바 같은 料金を 徵收하고 그 學校의 保護者會에 寄付한 일도 있다고 한다.

### 無料治療의 害

一. 無料인 까닭에 治療를 粗雜하게 하거나 않았나 의심하는 일.

二. 無料인 까닭에 兒童이 任意로 治療하고 父兄은 關知 못하고 따라서 最後에 即 全治까지 治療하는 者가 적은 일

三. 無料인 까닭에 診査는 府 또는 學校에서 報酬支給은 받는 것이 라 誤解되는 일.

同氏가 診査한 表를 다음에 推錄한다.

明治四十三年 七月二十日

### 京城日出小學校 兒童齒兒診査表

百名當 齲齒를 有하는者 84名임  
一人當齲齒數 男 3.5 女 6.0齒數  
注意=이 밖에 이미 治療를 加한

### (齒科醫 野田應治 診査)

學年別	男女別		診査人員	患者數	健康齒所有者數	要治療齒數
	男	女				
1 學年生	男	48	48	42	6	207
	女	44				
2 學年生	男	57	57	51	6	148
	女	39				
3 學年生	男	47	47	40	7	143
	女	32				
4 學年生	男	41	41	36	5	146
	女	46				
5 學年生	男	53	53	44	9	139
	女	30				
6 學年生	男	42	42	37	5	87
	女	36				
診査人員	男	288	288	250	39	870
	女	227				
合計		515		436	79	1,998

者 或은 拔齒하고 缺如된 者를 加할 때는 一人平均 七齒가 된다.

明治四十四年 四月

### 南大門小學校 兒童口腔診査表

學年別	男女別		診査人員	患者數	健康齒所有者數	要治療齒數
	男	女				
1 年生	男	71	71	64	7	218
	女	74				
2 年生	男	58	58	51	7	102
	女	36				
3 年生	男	49	49	42	7	109
	女	29				
4 年生	男	49	49	40	9	148
	女	32				
5 年生	男	50	50	46	4	91
	女	39				
6 年生	男	37	37	32	5	122
	女	30				
診査人員	男	314	314	275	39	790
	女	213				
合計		527		457	70	1,696

野田氏가 學校衛生에 힘쓴 것에 關해선 이것을 具體的으로 記術하려면 아직 많은 事蹟이 있으나 이 쯤해서 先 擱筆한다.

### 公共的奉仕

同氏는 資性 極히 温厚篤實한 人士이며 公共의 方面에도 相當히 盡力했으나 性來 名利에는 恬淡하였기에 그 社會的 位置에 對하여선 빛난 것은 아니었다. 特히 齒科醫師會를 爲해서는 언제나 會員間에 融和親睦에 힘쓰고 表面에는 그다지 나서는 않았다. 그리고 大正四年十二月 檜崎氏와 交代해서 京城齒科醫師會長이 되고 그 後 評議員으로서 會를 爲해 확실히 不過했다.

다음에 들것은 氏는 植民地에 對하여선 宗教의 隆興이야 말로 緊要한 것이라 하여 神社 佛閣에 多大한 寄與를 했었으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關係없는 것이기에 紙上에서는 省略키로 한다.

以上 野田氏의 事蹟의 大要를 쓴 것이 되는데 氏의 在鮮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明治二十年 即 氏가 十六歲 때부터 仁川에 와서 昭和四年四月 退鮮 歸國할 때까지 四十數年間 그 生涯는 거의 朝鮮에 있어서 齒科醫人으로 斯界에 貢獻한 것이었다. 歸郷 後 氏는 悠悠히 生活하고 있었는데 今春以來(譯者註= 昭和五年「1930」)病臥 七月十日 永眠했다. 享年 六十歲였다. 譯者로 삼가 野田應治氏 逝去에 對해서 哀悼의 뜻을 表한다. <朝鮮之醫界 創刊號~第四號에서>

(譯者=李漢水)-1960. 11. 17-

× ×

× × ×